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유형 고찰

최은식* · 승윤희** · 정진원***

학교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과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은 음악교과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해야 할 내용 선정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체계’이다. 다양한 수준과 범위, 진술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체계의 유형은 여러 나라의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분석하고 각각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유형을 큰 틀에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국가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바람직한 내용체계 제시 방식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크게 요목 중심, 성취기준 중심, 역량 중심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 범위, 사례 및 장·단점들을 기술함으로써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주제어: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요목 중심, 성취기준 중심, 역량 중심

차 례

- I. 서론
- II.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유형
 - 1. 요목 중심 내용체계
 - 2.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
 - 3. 역량 중심 내용체계
- III. 요약 및 제언

* 건국대학교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교신저자(yhseung@knue.ac.kr)

***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I. 서론

학교교육에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내용 선정의 문제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경섭(1991)은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내용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주된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일반적 의미의 교육내용 선정의 준거로는 교육목표 관련성, 학습내용의 중요성, 학습내용의 타당성, 학습자에의 적절성, 학습가능성, 사회적 적절성 및 유용성 등을 들 수 있다(김대현, 2011, pp. 165-168; 유광찬, 2008, pp. 90-92; 홍후조, 2002, pp. 308-309).

음악교과를 음악교과답게 가르치기 위해 국가수준 또는 주(州) 수준에서 제시하는 음악과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총론 수준에서의 목표, 음악교과의 성격 및 목표, 음악교과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또는 지침, 평가 등을 제시하는 구성체제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음악교과의 내용에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음악교과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해야 할 내용 선정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체계’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체계의 틀은, 학습범위(학습영역) 즉, 교과내용의 폭과 깊이를 의미하는 범위(scope)와 학습계열(학습계통) 즉, 교과내용의 순차적인 배열(배우는 순서)을 의미하는 계열(sequence)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직된다(김대현, 2011, pp. 175-182; 유광찬, 2008, pp. 100-110; 이경섭, 1991, p. 263). 음악과 교육과정은 범위와 계열이라는 수평적·수직적인 두 축을 제시하는 방식을, 중요한 음악 개념이나 요소, 주제, 활동 등을 단순히 열거한 형태에서부터 일반적인 음악교과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또한 학년별 제시에서부터 학년군별, 학급별 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진술한다.

음악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최근의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또는 개정 고시된 이후 비평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연구(민경훈, 2009; 이동남, 2008),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국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권덕원, 2009; 김영아, 2012; 양종모, 2010), 차기 교육과정이 나올 시점에 개선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한 연구(성경희, 2006a; 2006b; 이경언, 2013) 등 음악과 교육과정은 여러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선행연구들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목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을 다루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한 내용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양한 수준과 범위, 진술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여러 나라의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유형을 큰 틀에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국가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바람직한 내용체계 제시 방식을 제안하는 데 있다.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연구는 시의적절해 보이며 미래 음악교육을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유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선정된 내용이 어떻게 교육경험으로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일종의 지도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틀이 되어온 타일러(Tyler, 1949)의 이론에서 보자면, 교육의 목표는 이에 도달할 수 있는 경험의 내용을 선정하고 방법을 조직함으로써 구체화되며, 나아가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구성과정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창의적인 과정이다(p. 53).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구성에 있어서는 해당 교과와 본질과 구조에 기반하여 학습범위와 학습계열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리(Tyler, 1949; Bruner, 1971)와 함께 근간에는 교육과정 구성에서 교과와 학생 그리고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요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다(Walker & Soltis, 2004). 교육과정의 구성은 그 중심을 교과로 볼 것인지, 학생으로 볼 것인지 혹은 사회의 목적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구성의 방식과 진술의 유형이 변화될 수 있다(Walker & Soltis, 2004, pp. 102-105).

교과중심의 관점이 교과본질의 위계에 따라 교육내용을 배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학생중심의 관점은 학습자가 교육의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한다. 그런가 하면 사회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사회 차원의 목적지향적 관점’이 작용하여 민주적 사회, 도덕적 인간, 사회발전적 가치 등이 연동되어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된다(Tanner & Tanner, 1980). 이러한 세 가지의 관점은 교육과정 구성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드러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쟁점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크게 요목 중심, 성취기준 중심, 그리고 역량 중심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 범위, 사례 및 장·단점들을 다루었다. 실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시각의 내용체계가 교과 지식체계(body of knowledge)의 전수를 중시하는 교과중심 교육관(요목 중심), 학생입장에서의 경험과 성취의 정도를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경험중심 교육관(성취 중심), 그리고 보다 범교과적이고 본질적인 능력의 배양을 중시하는 교육관(역량 중심)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아 이 세 가지 유형의 내용체계를 선택하였다.

1. 요목 중심 내용체계

1) 정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음악교실에서 학생이 경험하여야 할 핵심적인 음악적 경험의 범위(scope)와 계열(sequence)의 체계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음악교실에서는 교육과정 문서보다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포함하는 교과용 도서의 준거가 된다.

‘요목’, 또는 ‘교수요목’에 의한 내용체계 제시방식은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제시유형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현재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형이다. 요목 중심의 내용체계 제시방식은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중심적 교육관을 반영하고 있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이 특정한 교과를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과 지식의 조직과 제시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관점이다. 따라서 요목 중심의 음악과 내용체계는 음악교과의 범위 안에서 학생이 습득하여야 할 지식, 태도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학 용어사전은 ‘교수요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

한 교과의 교육내용을 주제별 항목으로 조직하여 열거한 것. 따라서 그 교과에 어떤 내용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

1) <http://classroom.re.kr/2011/view.jsp?mcode=2316> (2014년 10월 9일 접속)

교육과정은 그러한 내용 항목, 즉 교수요목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교수요목은 교과서나 그 밖의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데에 기준이 되며, 이러한 학습자료를 통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번역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정의를 음악교과에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음악교과의 요목은 ‘음악교과의 교육내용을 주제별 항목으로 조직하여 열거한 문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음악교과의 학습은 인지적 지식뿐 아니라 활동이나 태도도 동일하게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라는 용어보다는 ‘영역’이라는 용어가 음악교과의 본질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요목 중심 내용체계를 정의하면, **‘음악교과의 학습내용이 영역별로 열거되어 있는 내용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요목 중심 내용체계의 범위

(1)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영역 구분의 변화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요목 중심으로 제시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통해 습득하여야 할 음악적 기능(skills)이나 지식(knowledge) 및 미적 태도(aesthetic attitudes)를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대영역 구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해방과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통일성 있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55년에 처음으로 국가 교육과정이 공표되었다. 이 때 제정된 제1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음악활동영역을 ‘가창,’ ‘기악,’ ‘감상,’ ‘창작,’ ‘음악의 생활화’(초등), ‘음악의 기초이론’(중등)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영역분류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 ‘음악의 생활화/음악의 기초이론’ 영역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3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다가, 미국의 개념중심 음악교육의 영향을 받은 1981년의 제4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능력,’ ‘표현능력’ 및 ‘감상능력’의 세 영역으로 대영역을 구분하고, 기본능력에서는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의 공통개념을 제시하고, 표현능력에서 가창, 기악, 창작, 활동을, 그리고 ‘감상능력’에서 감상활동을 제시하였다.

1981년 제4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기본능력’의 대영역으로 도입되었던 ‘기본능력’(이해)은 1987년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 ‘표현’의 하위 영역에 포함되었다

가, 1992년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해’의 대영역으로 재도입되었다. 독립적인 학습영역으로서의 이해는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2007년에 개정 고시된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해 영역을 대영역으로 존속시킴과 동시에 1차 교육과정기 이후 폐기되었던 ‘생활화’ 영역을 다시 도입하였다.

2009년에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의 분류를 일부 재도입하여 대영역을 ‘표현’, ‘감상’, ‘생활화’로 하였다. 다음 <표 1>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대영역을 교육과정 차시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음악과 교육과정 차시별 대영역 분류

교육과정 정차수	1차 (1955)	2차 (1963)	3차 (1973)	4차 (1981)	5차 (1987)	6차 (1992)	7차 (1997)	2007개 정	2009 개정
대영역	가창	가창	가창	표현 능력	표현	표현	활동	활동	표현
	기악	기악	기악						
	창작	창작	창작						
	감상	감상	감상	감상 능력	감상	감상			감상
	음악의 생활화 (초등)	—	—	—	—	—	—	생활화	생활화
	음악의 기초 이론 (중등)	—	—	기본 능력	삭제	이해	이해	이해	요소및 개념 (별도 제시)

(2) 요목 중심 내용체계의 범위

요목 중심 내용체계는 학생들이 익혀야 할 음악교과의 핵심내용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영역에 따라 학년별, 학년군별, 또는 학교급별로 요소화하여 제시한 내용체계를 의미한다. 이 유형의 내용체계 진술방식은 ‘장조’, ‘장단’ 등과 같이 한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요소 뿐 아니라, 준문장이나²⁾ 긴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학습의 수준(level)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넓게 보아 요목 중심 내용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곡과 민요 부르기’(제2차 교육과정)는 교과지식(악곡의 장르, 민요)과 교과기능(가창)을 담고 있지만, 수준이나 도달정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과의

2) ‘~하기’와 같이 영어의 동명사형에 해당하는 형태의 진술은 ‘준문장형’으로 명명하였다.

요목이라고 볼 수 있다.

3) 요목 중심 내용체계 사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제1차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내용체계가 크게 보아 요목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차시별 요목 중심 내용체계 진술의 사례를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차시별 내용체계 진술 방식 및 요목의 변화

교육 과정기	학습 영역	진술 사례	진술 형태	요목
1차	가창	• 가창교재의 조성은 C, G, D, F, B ^b 장조와 그 관계단조를 쓴다.	문장	가창악곡의 조성
	기악	• 독주악기를 연주하는 습관을 기른다.	문장	독주악기 연주
	창작	• 청기법(聽記法)을 활용하여 창작의 기초 능력을 삼는다.	문장	청음
	감상	• 일부형식, 이부형식, 삼부형식, 복합삼부형식, 론도형식, 쏘나타 형식 등을 감상한다.	문장	다양한 형식의 악곡 감상
	이론	• 화성악의 초보 지식을 얻도록 한다.	문장	화성악 기초이론
2차	가창	• 보고부르기와 듣고부르기	준문장	시창 및 청창
	기악	• 실로폰(철금)-이미 배운 가창 교재 및 자신이 작곡한 가락의 연주	준문장	제제곡 연주
	창작	• 가락을 즉흥적으로 짓고 다듬기	준문장	즉흥작곡
	감상	• 주제의 변화에 대한 감득 및 이해	준문장	주제의 변화 감지
	이론 (가창에 포함)	• 음표와 쉼표	단어 (용어)	음표와 쉼표
3차	가창	• 계이름을 외어 부른다.	문장	계이름창
	기악	•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연주한다.	문장	바른자세와 주법
	창작	•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락을 즉흥적으로 표현한다.	문장	즉흥연주
	감상	• 여러 박자의 음악을 듣고, 그 박자의 특징을 감별한다.	문장	음악을 듣고 박자 구별

교육 과정기	학습 영역	진술 사례	진술 형태	요목
4차	가창	•바른 호흡, 발음, 공명 등으로 개성에 따라 아름답게 부른다.	문장	바른 자세 가창
	기악	•악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주법을 익힌다.	문장	악기주법 습득
	창작	•8마디 정도의 가락(다장조, 바장조, 사장조)을 지어 적는다.	문장	간단한 가락 작곡
	감상	•음악을 들으며 구성 요소의 역할과 변화를 감지한다.	문장	음악을 들으며 요소 감지
	이론 (개념)	•인성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파악한다.	문장	음색(인성)의 종류 이해
5차	표현 (공통)	•빠르기와 썸머의 음악적 가치를 감지하고, 표현하기	준문장	음악요소 감지 및 표현
	가창	•듣고부르기와 보고부르기도 학습하기	준문장	청창 및 시창
	기악	•악보에 의하여 기악연주를 하기	준문장	시주
	창작	•즉흥적으로 가락을 지어 표현하기	준문장	즉흥표현
	감상	•악곡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평가하기	준문장	듣고 평가하기
6차	가창	•가사 및 계이름으로 보고 부르기	준문장	시창
	기악	•세마치, 굿거리 장단치기	준문장	장구장단 연주
	창작	•가사에 가락을 지어 부르기	준문장	가락작곡
	감상	•주제의 악보를 보며 듣기	준문장	독보하며 감상
	이론	•라단조, 마단조 음계 및 가락의 구성	단어 (용어)	라단조, 마단조 음계와 가락 이해
7차	가창	•악곡을 듣고 부른다.	문장	청창
	기악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어 연주한다.	문장	암보연주
	창작	•배운 곡을 변화시킨다.	문장	편곡
	감상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진다.	문장	감상태도
	이론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용어	장단의 종류 이해
2007	표현 (공통)	•바른 호흡으로 표현하기	준문장	바른 호흡
	가창	•가곡, 민요 부르기	준문장	한국 전통악곡 가창
	기악	•합주하기	준문장	합주
	창작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준문장	즉흥연주
	감상	•악곡에서 반복, 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	준문장	음악 요소 구별하며 듣기
	이론	•마침꼴(V-I)	용어	마침꼴 이해

4) 요목 중심 내용체계의 장·단점

요목 중심 내용체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기능, 및 태도로 이루어져 있는 음악교과의 전체적인 지식구조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 둘째, 학년별 필수 학습내용의 제시가 용이하다. 셋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넷째, 교과서와 지도서를 포함하는 교과용 도서의 명확한 준거를 제시해 준다.

반면에, 요목 중심 내용체계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일치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과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내용체계가 제시되는 편향성을 피하기가 어렵다. 둘째, 교육과정 내용체계 구성의 관심이 주로 ‘교과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교과 간, 또는 범교과적 내용을 다루기가 어렵다. 셋째, 학생의 배경이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학습의 내용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근거로 개발되는 교과서가 저자나 발행사에 관계없이 획일화되기 쉽다.

2.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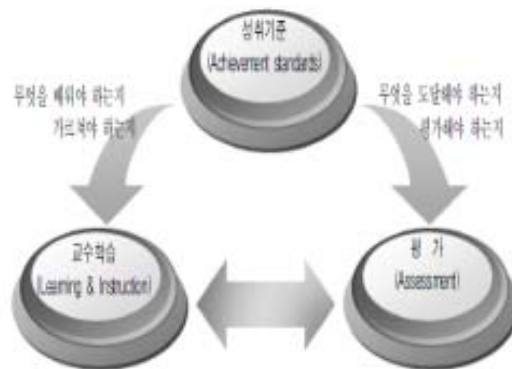
1) 정의

‘성취기준’은 ‘achievement standards’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standards’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상적인 표준기준으로 인정된 것’인데 사전적 의미나 일상적 용법에 따르면 ‘자격을 인정받기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혹은 ‘어떤 대상의 성격, 정도,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잣대’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준’ 또는 ‘표준’ 등의 용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표준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계량적인 느낌이 있어 ‘기준’으로 번역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보다 적합하다는 차원에서 사용되었다(정혜승, 2007).

우리나라에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이후(허경철 외, 1996), “수업이나 평가에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여 상세화한 목표나 내용의 진술문”(허경철 외, 1997)으로 정의되었다. 교육과정 질 관리 차원에서 성취기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상세화한 목표나 내용의 진술문’에 덧붙여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으로서 주로 학생의 입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정의하여 진술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게 되었다(이경언 외, 2012; 이돈희 외, 1997).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란 학생들이 일정한 교육 기간이 끝났을 때 학습의 결과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가르쳐야 할 주제 또는 제재가 나열식으로 제시된 기존의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제시는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과정의 질 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며,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 개발 및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실행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기준 내지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는 학생 입장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 교사 입장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교육과정 구성의 기반이 된다([그림 1]).



[그림 1]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p. 3)

2)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의 범위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는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학생의 성취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는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능력의 수준 또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편성한다. 또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학생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평가하고 도달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며 이를 위하여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이라면, 성취수준은 학생들이 교과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학년별 또는 상·중·하와 같이 몇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그 수준에 속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진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의 교육내용 진술은 ‘학생은 ~을 할 수 있다(can)’나 ‘학생은 ~을 할 것이다(will)’의 방식으로 기술하게 되지만,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의 방식으로 진술된다 하더라도 학생 성취의 단계와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면 성취기준 중심의 내용체계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 구성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핵심교육과정 내용기준(Core Curriculum Content Standards)’ 제시 방식을 들 수 있으며,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내용체계도 성취기준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대만의 경우도 1998년부터 목표 영역별로 학년의 수준을 고려한 성취기준인 ‘능력지표’로서 내용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3)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 사례

성취기준을 강조하고 있는 나라의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 할 수 있다.’, ‘~ 알 수 있다.’와 같은 평가적 시각의 진술 형식 뿐 만아니라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풍부한 활용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취기준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면 교과의 내용기준을 성취기준 형태로 진술하고 아울러 그와 같은 내용 기준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단계에 맞게 구체화하여 성취척도로 제시하고 있다.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는 학생이 도달해야 할 능력과 태도를 중심으로 대영역을 나누고 영역별 성취과정에 따른 성취 지표들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세부 성취 기준제시에 있어서 단계의 조직이나 진술 방식은 다양성을 보인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경우는 대영역에 따른 활동목표 제시 단계에서 다양한 수준의 성취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는 대영역에 따라 학년별로 성취기준들을 차별화하여 제시하며, 미국의 경우는 성취 기준을 여러 단계로 위계화하여 학생의 능력 발달과정을 구체화 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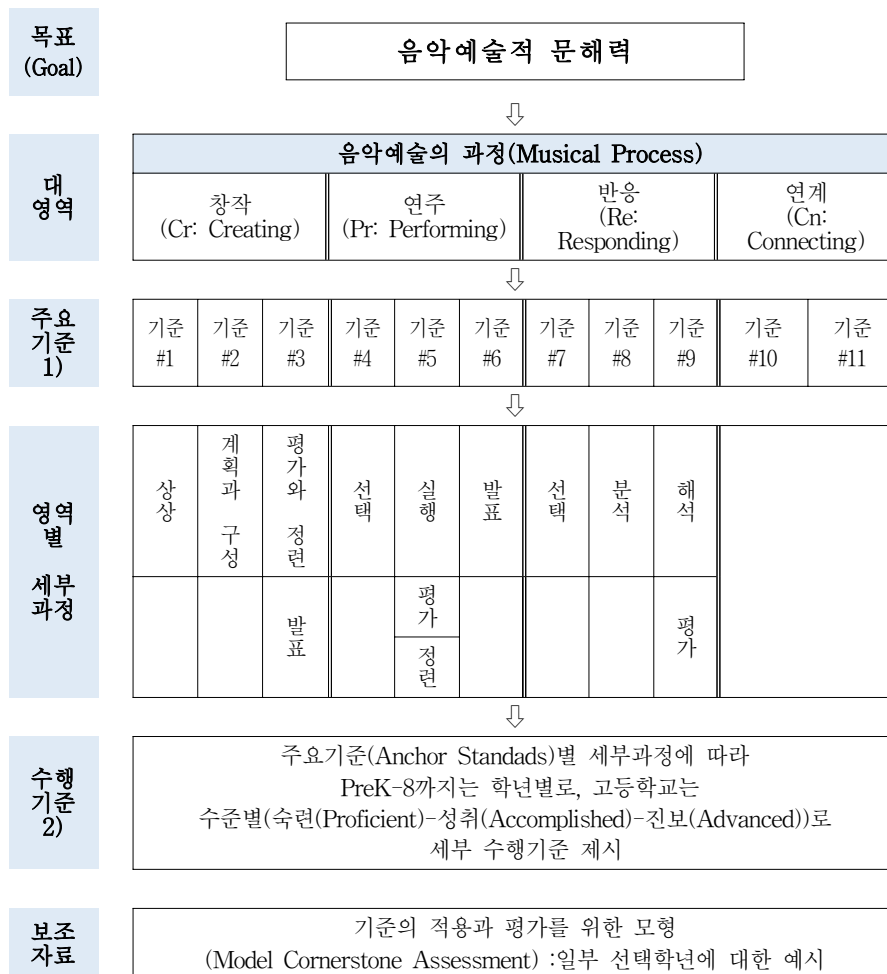
(1) 성취기준의 위계적 제시

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근간 지속적으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교수학습내용과 평가를 긴밀한 연계를 도모해 온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은 2001년부터 ‘No Child Left Behind’ 정책을 적용하면서 국가 교육의 보편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성취기준(standard)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행해 왔으며, 2014년 개정에서는 기존의 주요 성취기준을 세부단계별로 더욱 상세화하고 교수학습내용과 평가방법을 성취기준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국가핵심예술교육과정기준(National Core Arts Standards)’은 교과내용과 평가를 연계하기 위한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내용을 학습과정 위계에 따라서 구체화 한,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 구성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미국 음악과 교육과정의 지향점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예술적 문해력(Artistic Literacy)’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영역의 구성도 음악의 예술적 활동속성에 따라 ‘창작(Cr(Creating))’, ‘연주(Pr(Performing))’, ‘반응(Re(Responding))’, ‘연계(Co(Connecting))’의 네 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지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술적 과정 중심의 네 개의 대영역은 기반기준-수행기준-학년별 성취 수준으로 단계를 거치며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성취해야 할 것을 단계별로 구체화함으로써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활동들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실천되어야 할지를 명시하고자 하였다. 목표 수준에서는 예술로서 음악악을 이해할 수 있는 음악적 문해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영역에서는 예술적 음악활동 과정의 대표적 유형을 중심으로 대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각 대영역별로 3개 혹은 2개의 ‘주요기준(Anchor Standards)’을 두어 각 영역의 성격과 단계를 구체화 하고 있는데, 네 개의 영역별로 제시된 총 11개의 주요기준이 전체 교육과정 내용구성의 기준 틀이 되고 있음을 해설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SEADAE, 2014, pp. 8-9). 미국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위계적 단계를 거치며 구체화 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성취 기준인 ‘주요기준’은 바로 ‘수행기준(Performance Standards)’으로 구체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주요기준과 수행기준 사이에 영역별 세부과정(Discipline-specific Artistic Processes)을 두어 주요기준에 따른 수행기준의 성격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학년 별로 제시되는 세부 기준들의 계통을 명시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평가를 위한 예시(Model Cornerstone Assessment)

에서는 주요 교수전략과 활동 실행전략, 그리고 기준에 따른 평가 방법과 간단한 평가 도구와 분석 방법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평가 활동을 원활하게 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다.



1) 주요기준: Anchor Standards

2) 수행기준: Performance Standards

[그림 2] 미국 음악 교육과정기준의 구성 위계('State Education Agency
Directors of Arts Education (SEADAE), 2014' 기반 재구성)

(2)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

대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창작, 연주, 반응, 연계’는 음악예술 활동의 과정적 특성에 따른 분류이며 각 영역의 정의는 각 활동의 포괄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어있다<표 3>.

<표 3> 미국 음악 교육과정 대영역의 정의

영역	정의
창작 (Cr: Creating)	새로운 음악적 발상과 작품을 착상하고 발전시킴
연주 (Pr: Performing)	해석과 발표를 통해서 음악적 발상과 작품의 특징을 깨닫고, 연주함
반응 (Re: Responding)	음악이 의미를 담는 방식을 이해하고 평가함
연계 (Cn: Connecting)	음악적 발상과 작품을 개인적 의미나 외부 맥락과 연계함

대영역 별 정의의 진술방식은 동명사형(ing)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은 학생이 도달하게 되는 최종 성취의 의미로서 ‘학생은(Student) ~을 할 수 있다(will do)’, 혹은 ‘학생은(Student) ~을 할 수 있어야 한다(should do)’의 의미로 해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각 대영역은 3개 또는 2개의 주요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영역별 주요기준은 해당 영역에서 기대되는 활동 과정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이어, 각 주요기준 별로 활동의 전개 양상을 고려한 ‘영역별 세부과정’을 두어 활동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적, 태도적 특징을 재차 구조화 하고 있는 것은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4>는 대영역별 주요기준의 진술 방식이다.

<표 4> 대영역별 주요기준에 따른 세부영역의 제시

대영역	주요기준 (Anchor Standards)	영역별 세부과정 (Discipline-specific Artistic Processes)
창작하기 (Creating)	#1. (학생은) 예술적 발상이나 작품에 대한 생각을 발현시키고 개념화 할 수 있어야 한다 ³⁾ .	상상(Imagine)
	#2. (학생은) 예술적 발상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계획과 구성 (Plan & Make)

대영역	주요기준 (Anchor Standards)	영역별 세부과정 (Discipline-specific Artistic Processes)
	#3. (학생은) 예술적 발상이나 작품을 정련화하고 완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평가와 정련 (Evaluation & Refine)
		발표(Present)
연주하기 (Performing)	#4. (학생은) 연주를 위하여 예술 작품을 분석, 해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 (Select)
	#5. (학생은) 연주를 위하여 예술 작품을 발전시키고 정련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실행 (Rehearse)
		평가 (Evaluate)
반응하기 (Responding)	#6. (학생은) 예술 작품의 발표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련 (Refine)
		발표(Present)
	#7. (학생은) 예술 작품을 지각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Select)
연계하기 (Connecting)	#8. (학생은) 예술 작품의 연주(제시)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Analyse)
		해석(Interpret)
	#9. (학생은) 예술 작품에 내재된 의미와 의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Evaluate)
	#10. (학생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연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11. (학생은) 예술적 발상과 작품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연계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요기준(Anchor Standards)’이라 명명된 상위 기준에서는 각 대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진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실제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과정에 대한 수행기준을 의미하는 ‘수행기준(Performance Standards)’에서는 각 학년에 따라 기대되는 능력과 이해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행기준의 진술 방식을 보자면 음악 개념과 활동이 구별되어 제시되지 않고, 해당 수행기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측면이 연계되어 제시되는 진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5>의 창작영역 수행기준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이) 무엇(음악

3)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배경 설명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Students should learn to~’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성취기준의 모든 예에 적용되어 해석된다.
<http://ccssarts.weebly.com/blog/new-national-arts-standards-released-for-public-review-and-comment>

개념)을 어떻게(노래, 연주, 분석, 표현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의 방식으로, 개념과 활동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음악개념과 활동은 전반적으로 학년과 연령을 고려하여 단계적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창작 영역의 첫 번째 성취기준인 ‘음악적 발상을 발현시킬 수 있다’의 첫 번째 과정인 ‘상상(imagine)’ 단계를 보면 ‘자유로운 소리의 구성-목적을 가진 즉흥연주-맥락을 고려한 즉흥연주-음악적 형식을 갖춘 즉흥연주’의 방식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활동의 방법과 내용이 정교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른 활동의 심화는 활동 수준의 심화뿐 아니라 관련 개념의 측면에서도 일부 확인 할 수 있는데 <표 5>의 각 학년 ‘b’항에 나타난 음악관련 개념을 보자면 ‘일정박-박자-패턴- 리듬/ 선율의 윤곽-가락패턴-조성’ 등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미국 음악교육과정 ‘수행기준’ 진술 방식

주요기준(Anchor Standard)#1: 창의적인 음악적 아이디어와 작업을 발전시키고 이해할 수 있다.

지속적 이해: 음악가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천의 창의적 발상, 개념, 정서
기초질문: 음악가는 창의적인 발상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1st	2nd	3rd	4th	5th	6th
a. 제한적인 안내에 따라, 음악적 발상들(음악적 질문에 답하는 등)을 <u>특정한 목적</u> 으로 <u>구성</u> 한다.	a. <u>특정한 목적</u> 을 위해 <u>리듬과 가락 패턴</u> 그리고 <u>음악적 발상</u> 을 즉흥연주한다.	a. 리듬, 가락적 아이디어를 즉흥연주하고, <u>특정한 목적</u> 이나 <u>맥락</u> (개인적 또는 사회적)과 <u>연계</u> 하여 묘사할 수 있다.	a. <u>리듬, 가락, 화성적 아이디어</u> 를 즉흥연주하고, <u>특정한 목적</u> 이나 <u>맥락</u> (개인적 또는 사회적)과 <u>연계</u> 하여 설명할 수 있다.	a. 리듬, 가락, 화성적 아이디어를 즉흥연주하고, <u>특정한 목적</u> 이나 <u>맥락</u> (개인적 또는 사회적, 역사적)과 <u>연계</u> 하여 설명할 수 있다.	a. 단순한 리듬, 가락, 화성적 <u>악구</u> 를 <u>표현적 의도</u> 에 따라 <u>AB</u> 또는 <u>ABA</u>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b. 제한적인 안내에 따라, 음악적 발상을 다양한 조성(<u>장조</u> 또는 <u>단조</u>)과 박자(<u>2박</u> 또는 <u>3박</u>)로 발전시킨다.	b. 음악패턴과 음악적 발상을 주어진 조성(<u>장조</u> 또는 <u>단조</u>)과 박자(<u>2박</u> 또는 <u>3박</u>)의 맥락 안에서 발전시킨다.	b. <u>음악적 아이디어</u> (리듬과 가락)를 주어진 <u>조성</u> 과 <u>박자</u> 로 발전시킬 수 있다.	b. <u>음악적 아이디어</u> (리듬과 가락, <u>간단한 반주 패턴</u>)를 관련 <u>조성</u> (<u>장조와 단조 같은</u>)과 <u>박자</u> 로 발전시킬 수 있다.	b. <u>음악적 아이디어</u> (리듬과 가락, <u>간단한 반주 패턴</u>)를 특별히 제시된 <u>조성</u> , <u>박자</u> , 그리고 <u>간단한 화음의 변화</u> 에 따라 발전시킬 수 있다.	

4)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의 장·단점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 구성은 교과에 대한 이해 형성에 있어서 지식, 기능, 태도의 요소를 연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음악지식과 태도의 속성을 교육과정 문서로서 풀어내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과정 기준제시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성취기준 내용체계 구성은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목표수준에 도달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보다 분명한 활동지표를 제시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 목표활동을 중심으로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지식과 개념, 태도 등을 서술하기 때문에 교과 개념 및 지식의 세부내용을 교과의 지식 체계에 따라 계열별로 구체화 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예컨대 <표 5>에서 보자면 ‘리듬, 가락, 화성, 형식’의 기본 개념이 언급되고 있지만 각 개념에 따른 세부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지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활동 내의 학년별 심화 수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한적 안내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나 맥락에 연계하여’ 등의 서술적 부사구들이 동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적 부사구들은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여 기준으로서의 명료성 확보에 잠재적인 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성취기준 중심의 내용체계 제시 방식은 학생 차원에서 경험하게 될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활동의 특성과 방법을 보다 분명하게 안내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교과지식의 구조에 따른 영역 및 세부 개념을 체계적으로 계열화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냄을 볼 수 있다. 또한 성취수준의 단계와 적용 방법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수준설정이 필요하게 되어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의 개념적 혼란이 야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 역량 중심 내용체계

1) 정의

(1) 역량과 핵심역량

역량(力量, competency)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기업이나 조직의 맥락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조직원의 행동특성'으로 정의되지만(이재경, 2002, p. 60), 역량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다. 역량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능력, 즉 학습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정진원, 2012, p. 7).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역량은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개인의 보편적인 능력이고, 새로운 의미의 문해력, 즉 신 문해력(new literacies)이며⁴⁾, 보다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손민호, 2011, pp. 103, 105, 116). 따라서 역량과 핵심역량의 개념은 동일한 맥락에서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핵심역량은 개인적 역량, 학습역량, 사회적 역량의 범주로 제시되기도 하며(이광우 외, 2009), 인성역량,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의 범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이근호 외, 2012),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핵심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미래의 삶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이근호 외 2013, p. 17).

(2) 역량 중심 내용체계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역량의 개념은 교육에 도입되어 역량 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 CBC)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란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춘 역량 보유자 양성을 위해 역량과 역량 모델을 교육 분야에서 활용하는(이재경, 2002)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학교교육에 있어 핵심역량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삶의 실제에 보다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하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 폭넓게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교육과정이다(이근호, 2012, p. 35). 그러나 역량중심교육이 교과 대신 역량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역량중심교육이란 학교교육에 있어서 역량 중심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즉 학생들로 하여금 향후 사회적 삶에 필요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역량 중심 내용체계란, '학교교육의 구심점으로 선정된 역량들을 중심으로 교과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화 하고 그 실천을 현실화 할 수 있

4) 신 문해력이란, 문해력이 언제 어디서든 맥락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일 기능이 아니라, 담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발현되는 실천 행위들임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도록 구성된 내용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역량 중심 내용체계의 범위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역량은 다양한 교육영역의 목적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진술방식을 보이고 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성취해야 할 핵심역량 또는 역량들이 결정되면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다양한 교육영역들의 세부내용들은 선정된 역량을 지지, 구현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재조정하게 된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내용에는 사회적 실체에 필요한 기술이나 태도 뿐 아니라 종래에 다루어 온 교과적인 지식도 의미 있게 포함된다. 삶을 위한 역량의 구현은 다양한 교과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정진원, 2012), 교과는 여전히 개인의 핵심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경로가 된다(이근호 외, 2013, p. 23).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구현이나 실천을 위한 방법론 또는 접근 방식은 나라마다 달라서 국가(주)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 또는 핵심역량의 의미, 핵심역량의 준거, 선정된 역량의 종류 및 범주,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교육과정 전반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재구조화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드러난다. 역량 중심 내용체계는, 기본적으로 역량 및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교과의 내용이나 내용체계 진술 방식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부터,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의 내용이나 진술 방식을 크게 재설정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교과에 따라 다양하고 폭 넓게 나타날 수 있다.

3) 역량 중심 내용체계 사례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은 총론 수준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접근방식이 국가(주)별로 차이가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비교하기 위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인 뉴질랜드와 영국의 내용체계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은 사고하기, 언어/상징/텍스트 활용하기, 자기 관리하기, 대인 관계하기, 참여와 공헌하기의 다섯 가지이며, 8개의 학

습영역과 성취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에서 음악은 ‘예술 학습 영역’ 중의 한 분야로 진술되어 있다.

다음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뉴질랜드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일반적인 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성 속에서 각 세부 영역의 본질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고유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구성되어 있으며(함희주 외, 2012), 구체적인 내용은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다. 뉴질랜드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음악지식을 익히고,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음악으로 소통하고 음악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음악활동을 통해 국가의 비전인 ‘자신감 있고, 결속력 있으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6> 뉴질랜드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음악 교육과정은 예술 학습 영역의 네 가지 상호 관련된 요소들로 구성	
예술 학습 영역의 내용체계	음악 학습 영역의 내용체계
- 맥락 안에서 예술 이해하기	- 맥락 안에서 음악-소리 예술 이해하기
- 예술의 실제적 지식 익히기	- (음악의) 실제적 지식 익히기
- 예술적 아이디어 개발하기	- (음악적) 아이디어 개발하기
- 예술 안에서 소통하고 해석하기	- (음악 안에서) 소통하고 해석하기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 방식 및 학습영역의 내용구성	
요소별 핵심 학습 내용(수준 1-8, 1-13학년) ⁵⁾	
맥락 안에서 음악-소리 예술 이해하기	이 요소에서는, 학생들은 과거와 현재에서의 음악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과 지역의 음악을 나누고, 사람과 환경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해주는 음악 작품을 사회적 텍스트로써 탐구한다. 학생들은 동시대의 문화에서 음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음악의 공헌을 인식한다. 그들은 음악을 특별한 행사, 시간, 장소 그리고 감정과 결부 짓는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의 맥락 관계에서 음악의 양식과 장르를 비교하고 대조하며, 전통적 마오리 음악과 뉴질랜드의 다문화적인 음악 유산을 탐구하고 기념한다.
실제적 지식 익히기	이 요소에서는, 학생들은 듣기, 움직이기, 노래하기, 연주하기 같은 활동을 통해 음악의 구성 요소와 표현적 질을 탐색하고 반응한다. 학생들은 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 체계를 학습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음악적 언어를 익히고, 듣는 기술과 민감함을 개발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듣기를 활용한다. 학생들은 전통적, 비전통적인 소리원을 사용함으로써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조사한다. 그들은 음악의 요소들을 실험하고 음악으로 구현되는 소리의 구조적 계획을 발견한다. 그들은 차츰 복잡한 리듬 패턴, 선율, 화성을 생각해내고 편곡하고, 악기와 음성으로 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술을 탐색한다.

아이디어 개발하기	이 요소에서는, 학생들은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과 견해에 의지한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제공, 산출하고 느낌을 소통하기 위해 다른 소리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고 잠재적인 소리를 개발한다. 그들은 듣는 기술, 상상력,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작곡하고 기록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정교하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 구조 계획, 악기, 기술과 음악적 요소들에 관해 향상된 지식을 사용한다. 학생들은 향상된 자신들의 지식을 끌어내서 자신들의 작곡, 편곡, 그리고 즉흥 연주를 보여준다. 그들은 특정 양식, 장르, 관습, 문화적 형태의 범위 내에서 소재를 다루고, 구체적 목적을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한다.
소통하고 해석하기	이 요소에서는, 학생들은 개인 및 그룹 연주를 연습하고 발표하면서 유창함, 음악성, 그리고 기교적인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들은 적절한 기술과 실기 연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별로 연주하고 노래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주를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 연주의 음악에 대한 해석을 비평한다. 학생들은 음악 작품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다듬고, 발표하고, 관리한다. 그들은 음악을 듣고, 읽고, 해석하며 작곡가와 편곡자의 의도와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들은 과학 기술들이 어떻게 연주에 이바지하는지 탐색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녹음한다.

(2) 영국

영국은 ‘국가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학습’을 강조하며, 국가교육과정의 구성은 정신적·사회적·도덕적 및 문화적 발달, 역량과 관련된 핵심기술(key skills), 기타 교육과정의 측면이라는 세 영역으로 조직되어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범교과적인 발달이 음악교과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시되어 있다.

영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년이 아니라 핵심단계별로 내용이 구조화 되어 있다. 초등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1-2학년은 핵심단계 1에, 3-6학년은 핵심단계 2에, 그리고 중등 7-9학년은 핵심단계 3에 해당하며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초등과 중등 수준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다음의 <표 7>에서 보면, 영국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대영역과 소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함희주 외, 2012). 대영역은 일반적인 음악활동으로 진술되어 있지만, 소영역은 조절하기, 착안하고 발전시키기, 비평하기, 적용하기 및 이해하기 등으로 진술되어 있어 구체적으로는 음악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5)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학습을 8단계의 성취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7> 영국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가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학습	
- 음악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 증진시키기 - 음악을 통해 핵심기능 증진시키기(소통, 숫자개념 적용, IT, 다른 사람과 작업하기, 자신의 학습 및 수행능력 개선, 문제해결) - 이밖에 교육과정의 다른 측면 증진시키기(사고기술, 사업적 기술, 일과 관련된 학습)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 방식 및 학습영역의 내용구성	
핵심단계 1(초등 1-2학년) - 핵심단계 2(초등 3-6학년)	
대영역	소영역
연주하기	-가창과 기악을 통해 소리를 조절하기
작곡하기	-음악적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발전시키기
평가하기	-반응하고 비평하기
감상, 지식 적용 및 이해	-듣고, 지식 적용하기 및 이해하기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역시 공통적인 국가교육과정의 목표인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 있는 개인’,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와는 차별화되어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으로 나뉘어 있다(함희주 외, 2012). 대영역은 핵심개념과 핵심과정으로 구분되며, 핵심개념에서는 역량함양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핵심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음악교과의 색채를 유지한다. 핵심개념의 중영역 진술 방식뿐만 아니라 소영역에서도 통합을 통한 이해, 참여 협력하기, 견해를 발전시키고 의견을 타당화 하기, 새롭게 활용하기, 조절하기, 발전시키기 등으로 진술되어 있어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는 음악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표 8> 영국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교육과정 목표
음악과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 학습을 즐기고, 발전시키고, 성취해 나가는 성공적인 학습자 - 안전하고, 건강하고, 충족된 삶을 누리는 자신감 있는 개인 -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 방식 및 학습영역의 내용 구성		
핵심단계 3(중등 7-9학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핵심개념	실행통합	-연주, 작곡, 듣기의 통합을 통한 이해 -음악가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 협력하기
	문화적 이해	-국가와 세계 문화 속에서 음악적 전통 및 음악 역할의 이해
	비판적 이해	-음악을 분석하고, 견해를 발전시키고, 의견을 타당화하기
	창의성	-기존의 음악적 지식, 기능, 이해를 새롭게 활용하기
	소통	-음악을 통해 감정, 생각, 아이디어의 표현 방법 탐색
핵심과정	연주, 작곡 및 감상	-가창과 가악을 통해 소리를 조절하기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작하고 발전시키기 -음악듣기
	비평 및 평가	-비평하기와 평가하기

4) 역량 중심 내용체계의 장·단점

역량 중심 내용체계의 장점으로는 첫째,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균형있는 역량 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연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점, 둘째, 단편적, 분절적인 지식만으로는 무의미 할 수 있는 지식들을 상호 연관시킬 수 있고 지식의 진이와 사고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점, 셋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음악지식을 활용 또는 적용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의 획득을 강조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첫째, 음악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음악교과의 본질과 구조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요목 중심이나 성취기준 중심의 내용체계보다 음악교과의 내용 및 평가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셋째, 교과서 및 학습자료 개발은 자율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개발될 수 있지만 교육평가의 연계가 미흡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Ⅲ. 요약 및 제언

교육과정은 해당 교과와 본질적 구조와 그에 기반한 교육의 목표구현의 과정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진술은 교과가 담아야 할 내용과 함께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체계의 제시방식을 요목 중심, 성취기준 중심, 그리고 역량 중심의 관점에서 논하여 보았다. 각각의 내용체계 진술방식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목 중심 내용체계의 진술방식은 교과와 지식구조에 중점을 두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나열 방식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요목 중심 진술방식은 음악교과와 지식구조를 계열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학년에 따라 다루어야 할 요목의 난이도 변화를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음악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요목형으로 주어질 경우 학년별로 언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용이하며 교과용 도서 편찬을 위한 준거가 분명해지고, 그에 따른 교실수업에서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목 중심 내용체계의 진술방식은 음악 교수-학습의 성격이 교과내용 중심으로 편향되어 교실 음악활동 구성에 있어서 현재 강조되고 있는 융통합적 관점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교과내용의 범위와 계열을 교과구조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제시하는 까닭에 자칫 획일화된 교과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주입식 교육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의 진술방식은 음악교과와 내용을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교과와 내용을 구성, 진술하는 방식이다.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경험을 진술함으로써 학습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학생에게서 나타나야 할 성취지표를 중심으로 교과와 내용을 제시한다. 따라서 성취기준 중심 내용체계는 학생이 기대되는 학습수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교수학습을 경험중심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중심 교육방법을 구안하도록 안내하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교과지식에 대한 학생의 성취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접근될 수 있으며 성취에 대한 징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까닭에 제한된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육내용과 관련된 모든 성취기준과

사례를 제시할 수는 없다는 난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시된 성취기준이 실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적용될 때 성취기준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성취기준은 학생중심의 활동, 또는 경험을 중심으로 진술되는 까닭에 음악교과의 기본 지식구조에 대한 계열성과 계통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성취수준’, ‘성취기준’, ‘성취요소’ 등 개념의 혼재가 지적되기도 한다.

역량 중심 내용체계는 인간중심의 범교과적 교육목적을 중시하여, 교과교육의 전이적 교육효과를 강조한다. 따라서 내용체계 구성 요인 설정에서부터 기존의 교과중심 범위에서 탈피하여 범교과적 차원의 교육가치 전이에 관심을 둔다. 역량 중심 내용체계는 교과내의 단편적 학습요소나 기능을 진술하는 단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습득한 지식을 삶의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 전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고려하여 진술함으로써, 음악영역 뿐 아니라 타 예술영역, 나아가 개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천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적절성을 지닌다. 그러나 범교과적 교육목표에 따른 경험의 전이가 지나치게 강조될 때, 역량 중심 내용체계에서는 음악교과의 본질, 성격 및 기본 구조 등이 흐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음악교과 내용의 계열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음악과의 내용과 경험이 범교과적 요인들과 혼재됨에 따라서 학습의 내용과 그에 따른 평가 수준과 방법, 결과에 대한 관점이 주관적이 될 수 있으며 수업의 내용과 질이 교사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종합하면, 요목 중심, 성취기준 중심, 그리고 역량 중심의 내용체계 진술방식은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음악교과의 구조를 미시적인 수준(요목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거시적인 수준(역량 중심)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보다는 세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장 거시적인 수준에서 교과의 구조를 바라보는 역량 중심의 진술은 ‘목표’의 수준에서 다루고, 수업활동 중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진술하는 성취기준 중심의 진술은 ‘내용체계’에서 제시하고, 음악교과의 세부적인 구조를 다루는 학습요목, 또는 학습요소는 별도의 표로 제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가 이러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음악교과의 목표(역량), 어떤 영역에서(학습요소표) 어떤 활동과 수준으로(성취기준) 실현시킬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덕원(2009).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국악교육의 방향. **국악과 교육**, 27, 7-23.
- 김대현(2011).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영아(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국악 관련 내용 고찰. **국악교육연구**, 6(2), 5-25.
- 민경훈(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음악교육연구**, 37, 1-33.
- 성경희(2006a). 21세기 사회와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음악교육공학**, 5, 1-7.
- 성경희(2006b). 차기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내용적 특성. **음악교육공학**, 5, 9-29.
- 손민호(2011). 역량중심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 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논단**, 10(1), 101-121.
- 양종모(2010).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의 변천과 방향 탐색. **음악교육공학**, 11, 71-84.
- 유광찬(2008).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윤현진 외(2008). 연구보고 RRC 2008-2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경섭(1991). **교육과정 유형별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경언(2013). 문화 역량 제고를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음악교육연구**, 42(3), 239-272.
- 이경언, 장근주, 박지현(2012). 음악과 성취기준의 개발 양상 및 개선 방향 고찰. **음악교육연구**, 41(1), 113-14.
- 이광우 외(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총괄 보고서(RRC 2009-10-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 외(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연구보고 RRC 2012-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 외(2013).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연구보고 RRC 2013-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돈희 외(1997). 음악 I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

- 구보고 CR 97-55-8.
- 이동남(2008).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제 문제. **한국초등교육**, 18(2), 149-163.
- 이재경(2002).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에 대한 고찰: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 체계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18(4), 59-90.
- 정진원(2012). 미래사회 대비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정혜승(2007). 성취 기준 중심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23, 183-21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총론. CRC 2013-2.
- 함희주 외(2012). **세계의 학교 음악 교육과정**. 경기: 교육과학사.
- 허경철 외(1996).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일반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M 96-4.
- 허경철 외(1997).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교과별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97-18.
- 홍후조(2002).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문음사.
- Bruner, J. S.(1971). *The relevance of education*. New York: W.W.Norton & Co.
- Ministry of Education, Taipei, Taiwan (1998). *General Guidelines of Grade 1-9 Curriculum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Education*. Retrieved October, 24, 2014, from <http://hrd.apec.org/images/4/43/47.3.pdf>
-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2010). *Curriculum achievement objectives by learning area*. Retrieved August, 14, 2011, from <http://nzcurriculum.tki.org.nz/Curriculum-documents/The-New-Zealand-Curriculum>
- State Education Agency Directors of Arts Education (2014).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Retrieved July, 26, 2014, <http://nationalartsstandards.org/>
- State Education Agency Directors of Arts Education (2013).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rts Learning*. Retrieved October, 15, 2014, from http://musiced.nafme.org/files/2013/07/national_core_music_standards-background_rev7-2-13c.pdf
- Tanner, D. & Tanner, L.(1980). *Curriculum development* (2nd ed.). New York: Macmillan.

Tyler, R. W.(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alker, D. F. & Soltis, J. F.(2004). *Curriculum and aim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ABSTRACT

A Study on Presentation Types of the System of Content in Music Curriculums

Eunshik Choi, Yunhee Seung, Jin-Won Chung

The objective of school music education should be brought to realization through the national music curriculum. The system of content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national music curriculum in that it systematically designates what to teach, what to learn, and what to experience through the subject matter of music. The system of content, which could be presente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its organization and writing styles, may be understood by analyzing and categorizing various music curriculums of different countr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categorize main presentation types of the contents and sequences of the music education curriculums; seco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third, to suggest a more advisable way of presenta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music curriculum. As results of the study, 'index,' 'achievement standards,' and 'competencies' were identified as the key elements of the three main types of presentation of the contents of music teaching and learning. Accordingly, in this study, definitions, example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type were described, and finally, a new type of presentation for music learning contents was suggest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chool music curriculum.

Key words: music curriculum, system of content, index centered, achievement standards centered, competency centered.

투고일: 11월 30일, 심사(수정): 2015년 2월 3일(2월 13일), 게재확정일: 2월 13일